

# 모아상담소

2025. 가을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 Contents

1. 인사말 – 모아맘보육재단 보육대표 김광자
2.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 – 아동관찰 / 반관찰
3. 사례공유 – 느린 기질 아동
4. 책소개 – 바운더리 (저자: 김 현)
5.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원장 서하령
6. 연구소 소식 –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7. 프로그램 비용 안내
8. 연구소 협약기관
9. 연구소 위치 및 연락처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업무에 애쓰시는 모아맘 가족 여러분에게 계절이 주는 선물이 위로와 행복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 연구소는 모아맘 재단만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차별화된 어린이집 지원 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아동발달 연구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발달심리사 과정 및 영유아발달평가사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을 직·간접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한 교사·부모 솔루션 제공으로 교사의 전문성 및 부모의 양육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은 모아맘 가족 모든 분들의 협조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발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아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발달연구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무르익은 가을의 열매처럼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아맘보육재단 보육대표 김광자



#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 - 아동관찰 / 반관찰



한국아동발달연구소에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아동관찰과 반관찰이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현장의 필요로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관찰과 반관찰은 뭐가 다른가요?”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있어 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관찰 프로그램**]은 (1)아동관찰, (2)교사코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문제, 행동문제, 심리적 어려움 등 개별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아동관찰 :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익숙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놀이하는 대상 아동을 관찰합니다.

(2) 교사코칭 : 관찰내용 및 방문 전 제공한 아동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코칭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면담을 통해 대상아동에 대한 정보(심리적, 발달적)를 제공하고 아동의 발달 및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코칭합니다.

아동관찰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관찰 후 부모상담을 같이 진행합니다.





[반관찰 프로그램]은 (1) 반관찰, (2) 교사코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 반을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히 관찰이 요구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상 아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3~5명) 대상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아동을 관찰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 특징, 또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 (1) 또래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교사-아동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한 반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아동관계 중심 코칭이 필요한 경우

아동관찰 및 반관찰은 이슈 발생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가 크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교사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후 연구소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구소 e-mail: [kcdlab@daum.net](mailto:kcdlab@daum.net)



# 사례공유: 느린 기질 아동

이번 호에는 아동관찰, 교사코칭, 부모상담을 진행하며 만난 느린 기질 아동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사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내용의 일부 각색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Q. 친구와 잘 놀지 못하고 혼자만 놀아요. / 만5세 민석이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하는 민석이는...

- 언어발달이 늦고 말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 관심있는 활동 이외에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 혼자놀이만 하려고 하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요.

## 연구소 전문가의 아동관찰

- 민석이는 혼자 장난감 자동차에 타고 다니는 놀이를 함. (주로 안전벨트를 메었다가 푸는 행동의 반복)
- 시각, 촉각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이 보여지나 길거나 반복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음.
- 친구가 민석이에게 다가와서 물건을 주기도 하며 친구의 요구에 작은 목소리지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함. 친구가 다가와서 "이건 뭐야?"라는 질문을 던졌으나 바로 답하지 못하자 친구는 자리를 떠남. 교사에게 "도시락 싸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함. 교사가 "누가 썼어?" 라고 묻자 "내가요."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함. 교사는 다시 다가온 친구에게 민석이의 말을 전달해 줌.
- 놀이를 마무리 하라는 지시에 자동차에 실었던 것들을 제자리에 두고 옴.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해 여러 차례 오고 가지만 정리하지 못함. 교사가 종류별로 분류해주자 바로 정리가 끝남.



### 교사와 원장님께 드리는 Tip

- 민석이는 혼자놀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양이 적은 편임.
- 감각추구 등의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므로 관심을 갖고 관찰이 필요함.
- 민석이는 혼자놀이 시간이 많으나 친구들이 민석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석이도 친구들의 행동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민석이가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민석이는 매우 느린기질의 아동으로 보여짐.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또래의 경우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므로 상호작용에서 좌절하거나 거부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됨.
- 민석이는 언어 뿐만 아니라 행동의 경우도 소근육의 움직임이나 시각적 통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아동에 비해 수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부모님은 민석이가 자조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해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 민석이는 스스로 해 보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짐.

### 느린기질 아동을 위한 Tip

- ☞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 이때 부모가 서두르거나 재촉하면 아이는 압박감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 ☞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아이의 속도를 조금씩 바꾸려 하기 보다는 아이가 가진 고유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 느린기질의 아이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정표현이 서툰 경향이 있습니다.
- ☞ 느리지만 신중하고 깊이 탐구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동의 강점을 찾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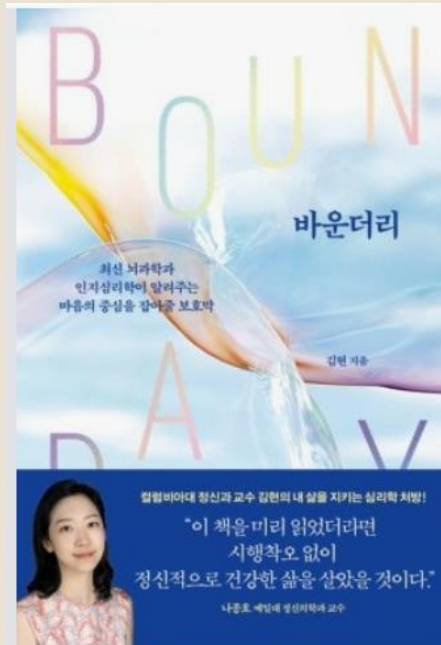


# : 책소개

BOOK

## 바운더리

최신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  
알려주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 줄 보호막



저자

김현

뇌과학자 / 심리학자 / 임상심리사  
미국 보스턴 대학 임상심리학 박사  
(현)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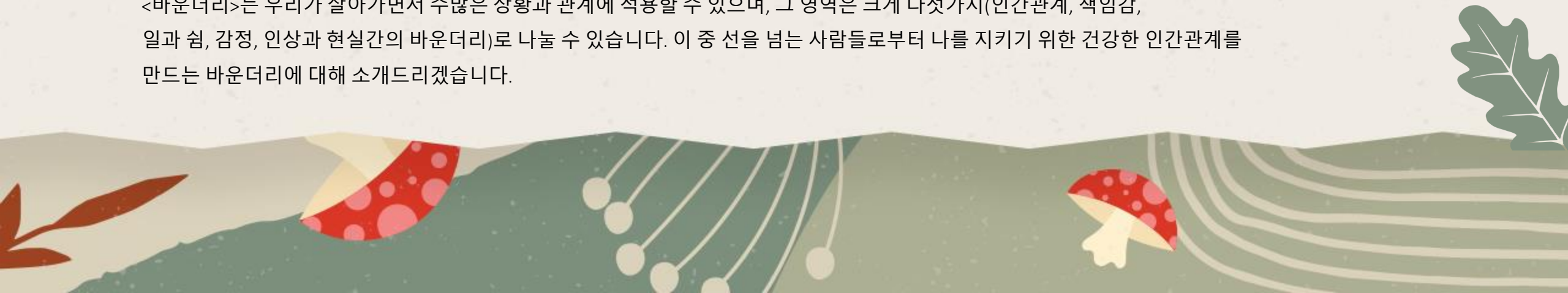
<바운더리>는 주변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더 나은 미래를 가꾸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정적 '지금의 나'를 돌보지 못해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부모상담을 하면서 "어머니, 아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스스로에게 충분히 쉴 시간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누리기 위해 현재의 삶은 희생하며 쉴 틈 없이 달리고, 그 탓에 현재의 삶에 만족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운더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운더리>가 "매정하게 선을 긋는 행위"라는 오해를 풀고 진정한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가장 나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정하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즉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를 보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정하게 선을 긋는 행위"나 "손절"과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면 뇌도 그에 맞게 변하게 됩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바운더리>를 구축하는 과정은 "뇌의 회로를 바꾸는" 혹은 "뇌의 근육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정을 주는 '마음의 정원'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구상하고, 예쁜 꽃과 나무를 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잡초가 보이면 뽑아주며 내 손으로 공간을 가꾸어야 합니다.

<바운더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관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영역은 크게 다섯가지(인간관계, 책임감, 일과 쉼, 감정, 인상과 현실간의 바운더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선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바운더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로 실망감과 피로와 고립감을 느끼는 '관계 번아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로 때문에 오는 번아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외부 압박과 충돌하고 자기 가치를 낮게 느끼게 되면서 생기는 번아웃입니다. 특히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해 사회 활동에 대한 피로가 쌓일 때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선을 넘는 직장 동료나 가족에 대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불편감을 참는 동안 마음 속에서 서운함과 실망감이 쌓이고, 이런 감정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두터운 벽을 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적절한 정도의 바운더리와 그에 맞는 행동으로 내 안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

1.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2.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3. 내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바운더리>가 그 동안 외적인 요소만 따라가느라 살펴보지 못했던 마음에 손을 내밀어주는 시작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부모교육 “어쩌다아빠, 이제는 제대로 성교육”



원장 서하령

안녕하세요?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원장 서하령입니다.

인천 아라뱃길 근처, 자연과 숲이 어우러진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정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재개발원, 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매립지관리공사, 녹색융합클러스터 총 7기관이 함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연구단지 입니다. 그 중에서도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산책길,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잔디밭, 작은 손길에도 반갑게 인사하는 풀벌레 소리까지...

어린이집의 하루는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학기를 시작하며 부모님들과의 대화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세와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아버님은 “딸을 키우면서 제가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특히 요즘 둘째가 태어나면서 큰 아이의 목욕을 시키거나 수면시간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딸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항상 염려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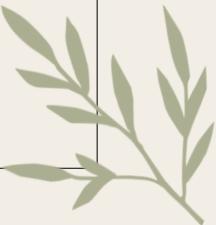
또 하나의 고민 사례도 말씀드리면 5세 아들, 2세 딸을 키우시는 어머니가 상담요청을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곤충도감에서 본 짝짓기 장면을 보면서 동생에게 “짝짓기 재미있겠다. 우리 해볼래?”라며 이야기 나누는 상황을 아빠가 바로 옆에서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육아고민을 듣다 보니 특별히 아빠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필요하고 성별이 다른 동생이 태어나면서 육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느껴 한국아동발달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어린이집 강당에서 진행된 성교육은 점심시간(11:30~13:00)에 이루어졌고 40여명의 아빠가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기 성교육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성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 영유아기 성교육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성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 경계교육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
- 영유아 자위는 몸탐색놀이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함
- 부모와 자녀의 목욕 및 수면 분리하기
- 아무리 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하면 멈추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진행된 “어쩌다 아빠: 성교육”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아동발달연구소로 강의를 의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구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교육의 주제보다 평상시 양육하면서 궁금해했던 자녀 성교육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식과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동발달연구소는 본 교육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강지현소장님의 실제 육아와 세 자녀를 키운 육아 노하우로 영유아기를 지나는 아빠들에게 생생한 육아사례와 성별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셋째,** 정보전달식 강의보다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빠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방법과 상호작용법 등을 알고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들은 솔직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소장님께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3세인 딸아이와 같이 목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씻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면분리는 부모가 먼저 시작할지 아이가 준비가 되면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성별이 다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 경계를 존중하고 싶은데 일상생활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책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자신의 성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아빠들의 고민은 자신이 몰라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녀를 대하고 성교육 할 수 있는 대화법을 궁금해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혼자 고민했던 부분을 여러 아빠들과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다음에는 엄마들을 위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 **부모교육이후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다섯 살 딸과 같이 아무런 생각없이 목욕하던 모습에서 성교육 이후 딸에게 스스로 목욕하도록 격려하고 딸을 씻겨야 할 때 속옷을 입고 들어가서 씻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수면분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준비하도록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아빠,엄마와 따로 취침할 수 있도록 공간과 마음의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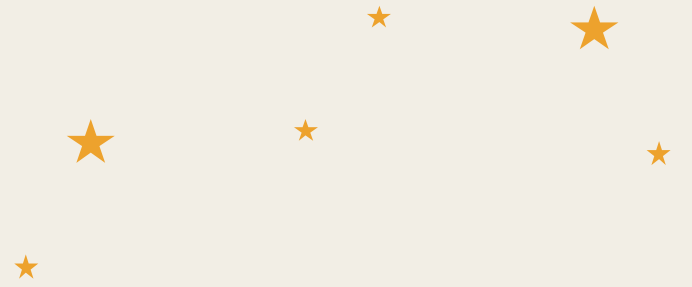
“엄마들을 위한 성교육도 준비해주셔서 아들을 키울 때뿐만 아니라 남매를 키우거나 쌍둥이를 양육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부모교육 자주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아빠 : 성교육」이 진행되는 당일에는 먼 길을 오시는 소장님의 바쁜 일정을 아끼기 위해 연구소에서 새로 시작하는 [교사-아동 애착코칭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아들의 문제행동을 지원하거나 반을 이끌어갈 때 교사와 영아간의 애착형성을 바탕으로 40분간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영아 개별지원에 대한 고민과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해주었습니다. 하루에 2가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3번 옷을 갈아입으시는 열정을 보여주셨던 소장님의 탁월한 강의는 지금까지도 부모님들의 기억속에 자녀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솔직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직원·학부모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시고 나의 일처럼 고민해주신 한국아동발달연구소는 보육현장의 큰 위로이며 그 배움을 간직하며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영유아발달평가사 자격과정 대면교육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25. 07. 08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2025. 07. 10 부산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2025. 07. 15

# : 영유아발달평가사 자격과정 대면교육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2025. 07. 17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2025. 07. 22



영유아발달평가사 대면교육  
2025. 07. 25

#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협력기관

## 서울 7개소

- 강남  
소은희마인드피아의원/  
해인상담심리연구소
- 서초  
서울아동청소년상담센터/  
이윤수상담연구소 이담소
- 마포  
마포교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서  
마인드포유심리발달연구소
- 관악  
남영심리상담센터

## 경기 6개소

- 성남  
을지대학교 부설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 판교  
MIND SPACE 아동청소년상담센터
- 수원  
해담심리언어발달센터 /  
광교중앙아동청소년상담센터
- 화성·동탄  
남동탄심리언어발달센터
- 평택  
휴먼마인드센터

## 인천 1개소

- 인천  
홍은심리상담센터

## 충북 1개소

- 청주  
행복한라파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 충남 1개소

- 세종  
꿈꾸는별 아동청소년상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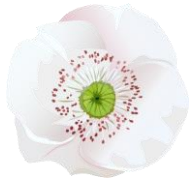




1.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홈페이지: [kcdlab.or.kr](http://kcdlab.or.kr)

---



2. 연구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7, 2층  
모아맘보육재단 내

---



3. 연구소 MAIL / 연락처

[kcdlab@daum.net](mailto:kcdlab@daum.net)

02-6338-1011

---



# Thank You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